

부실기업 정리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

- 11월 3일 은행권의 기업판정에 따라 52개 부실기업이 퇴출(청산), 법정관리, 매각, 합병 등의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이들 기업 및 관련 업체들로부터 고용 조정에 따른 실업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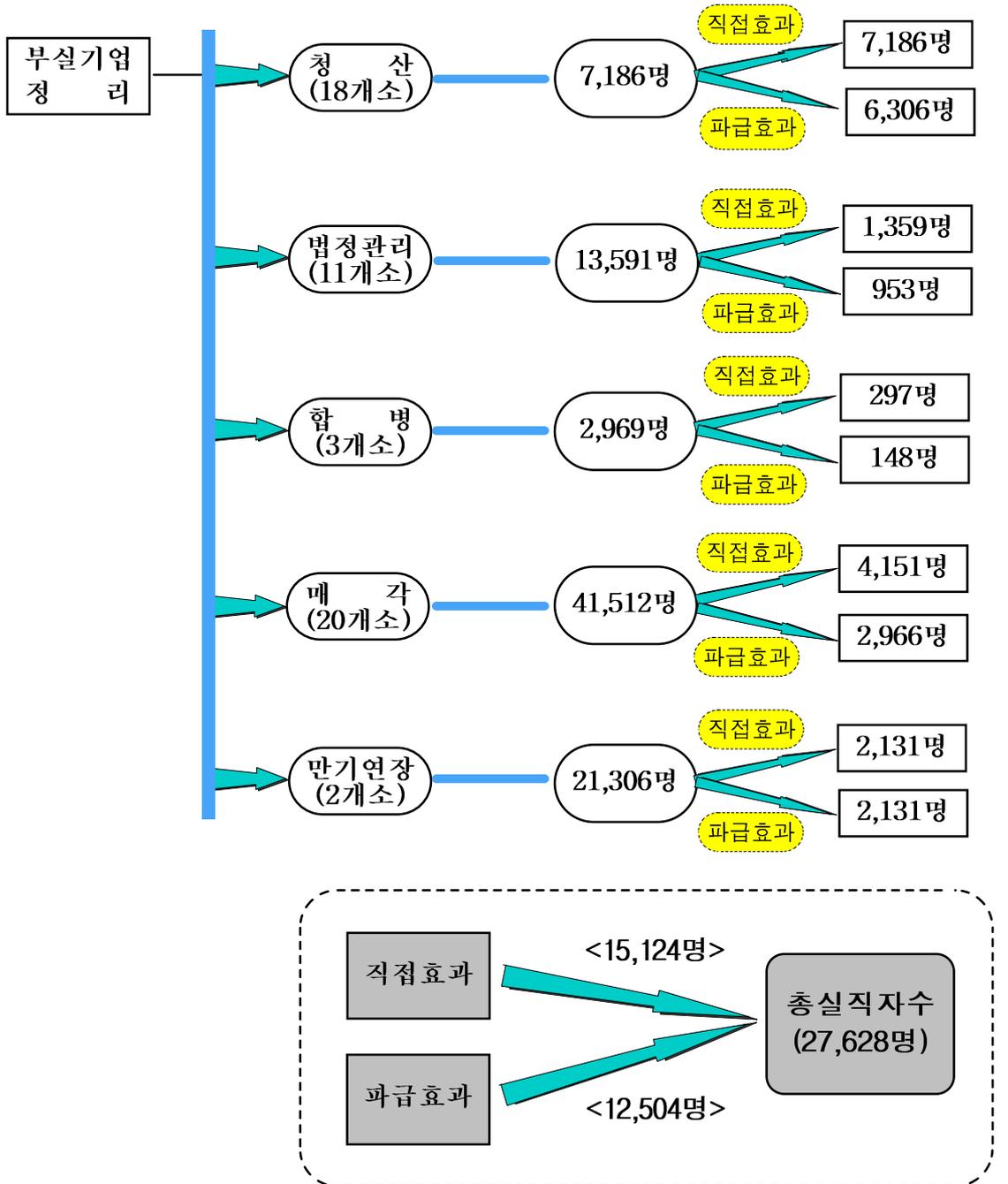
- 그러나 이번 부실기업처리에 따른 실업의 발생규모는 부실기업의 처리 방법, 관련업체에의 파급효과,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재취업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 될 것임.
 - 퇴출(청산)대상기업에서는 당장 종업원 대부분이 실직대상이 될 것이나 법정관리, 매각, 합병대상 기업은 그간의 기업개선작업 등으로 이미 상당정도의 인원삭감이나 재배치 등 인원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추가감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.
 - 이들 처리대상기업과 협력 또는 하도급 등 산업연관 관계에 있는 업체 고용에의 파급효과는 건설업이나 자동차 제조업 등에서는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이나 기타 업종의 경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- 동시에 해당 기업 실직자들의 경우 그간의 부실징후 속에서 개인적으로 유사업체에의 재취직, 전직, 창업 등을 준비하여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외환위기 직후의 대량실업의 발생 때와는 달리 실업의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임.

- 청산기업의 실직자 발생 비율을 100%, 법정관리, 매각, 합병대상 기업의 실직자 발생비율을 10%, 현대건설, 쌍용양회 등 자구노력(만기연장)기업의 실직자 발생비율을 10%로 가정하고, 이 중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큰 건설업이나 자동차 제조업의 파급효과를 1배수, 기타 업종의 파급효과를 0.5배수로 가정하였을 때 이번 조치로 **2만 8천여명 정도의 실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** 것으로 추정됨.
 - 이들이 계속적으로 실직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머무를 경우(구직활동을 지속할 경우) **실업률은 0.12%포인트 추가 상승할** 것이나, 이들 중 상당수가 가까운 시일내에 재취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 증가가 이 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[그림] 54개(조건부 희생 2개 포함) 부실기업정리에 따른 실직자 발생규모

<현 종업원수>

<실직자수>



주: 전체 54개(조건부 희생 2개 포함)기업의 종업원수는 명단이 파악된 37개 기업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극단치를 배제하고 평균하여 나머지 기업에 적용하여 추정하였음.

<표> 부실 처리기업 명단 및 종업원수(자구노력(만기연장)기업 포함)

(단위: 명)

구분	기업명	종업원수	구분	기업명	종업원수
청산	광은파이낸스	7	법정관리	대한통운	5,594
	기아인터트레이드	42		동보건설	107
	삼성상용차	1,300		영남일보	543
	양영제지	261		동양철관	258
	한라자원	227		세계물산	687
	해 우	100		우 방	1,024
	대동주택	165		청 구	432
	대한중석	7		태화쇼핑	297
	미주실업	196		해태상사	499
	삼성자동차	1,800		동아건설산업	3,909
	신화건설	861		서 한	241
	우성건설	601	총 11 개	13,591	
	일성건설	213	매각	진도	1,215
	피어리스	759		고합	1,920
	삼익건설	290		대우자동차	17,800
	서 광	188		세풍	609
	진로종합식품	84		총 20개 중 4개	21,544
	진로종합유통	85			
총 18 개	7,186				
합병	갑을	1,364	조건부회생 (만기연장, 추가자금지 원없음)	현대건설	19,080
	갑을방적	615		쌍용양회	2,226
	총 3개 중 2개	1,979		총 2 개	21,306
총인원(37개) : 65,606					

주: 1) 정리대상기업은 총 52개(조건부 회생 2개 제외)이나 이 중 법정관리·청산기업 29개 명단만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기타 6개는 언론을 통하여 확인한 기업이고 나머지는 매각대상에 포함된 대우계열사 10개사 등이나 명단이 확인되지 않아 표에는 포함시키지 못함.

2) 종업원수는 매일경제신문사, 『회사연감』, 2000에 의함.

□ 금번 기업구조조정 조치로 당장은 실직자가 증가할 것이나 내년 이후에는 기업과 경제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오히려 구조조정 이전보다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.

○ 이에 따라 금년 4/4분기 실업률은 3.9%, 실업자수는 85만 명대, 연평균으로는 4.1%에 90만 명 수준을 기록할 것이며,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되어 경제에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 경우(경제성장률 6%대) 내년에는 실업률 3.5%에 실업자수는 79만 명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.

- 그러나 경제의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4%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, 이 경우에는 실업자수는 금년대비 54천 여명 증가한 940천 여명, 실업률은 0.2~0.4%p 상승한 4.2~4.4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
[그림] 시나리오에 따른 실업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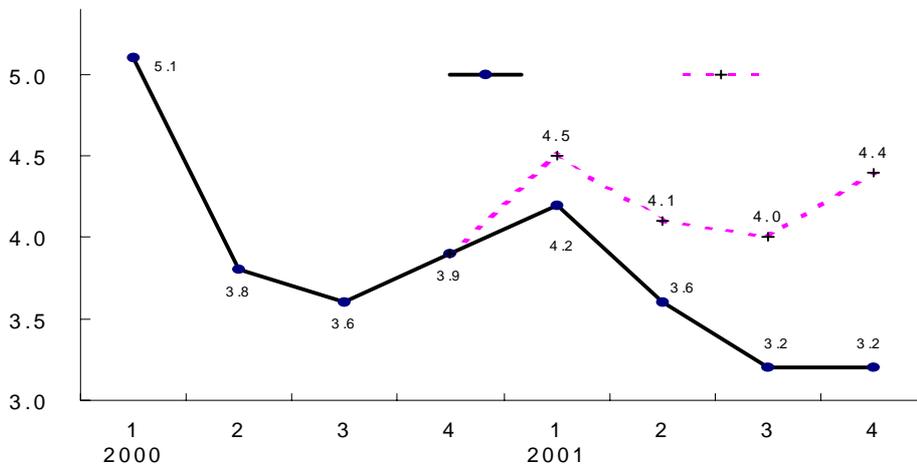


그림 2

□ 따라서 양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실업대책에서 목표집단 지향적이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며 유희인력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는 현행 실업대책의 기본기조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함.

○ 하지만 금번 조치로 당장 실직가능성이 높은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 가운데 고용보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또는 별도의 조치로 특별 강구될 필요가 있음.